

[한인여성과학기술자협회(KWiSE) 텍사스지회]“여성 과학인 커리어·리더십 강화”

코리아저널

2017.05.26 04:27 조회37

- 문서주소 - http://www.kjhou.com/ver14/bbs/board.php?bo_table=sub101&wr_id=4470



▲ 김지은 회장

20일, 제2회 연례 컨퍼런스 개최

한인여성과학자들의 모임인 한인여성과학기술자협회 텍사스지회(회장 김지은, 이하 KWise 텍사스지회)가 20일 라이스대학에서 제2차 연례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종일 행사로 열린 이날 컨퍼런스에는 김형길 휴스턴 총영사와 최석주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남텍사스지부 차기 회장, 안용준 변호사 등이 참석해 한인 전문여성과학자들의 학술적 교류와 리더십 강화 노력을 격려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텍사스 메디컬 센터를 중심으로 베일러대학, MD 앤더슨, UT Houston 및 라이스대학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여성과학자들과 학생들까지 약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종일 행사로 진행됐다.

작년에 출범한 KWise 텍사스지회는 향후 활성화의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이날 연례 컨퍼런스에는 휴스턴 총영사관을 비롯해 (재)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ET), 한미과학협력센터(KUSCO), UT Health Medical School, DNA Link 등 한국과 미국의 8개 관련기관들이 공동후원하며 큰 관심과 기대를 보이고 있었다.

김지은 회장은 “KWise는 한인여성과학기술자들의 네트워킹 그룹으로 텍사스 메디컬 센터 안팎의 필드에서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고 학계와 산업계에서의 경력 개발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형길 휴스턴 총영사는 “여성 과학자들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연구 성과의 교류를 촉진해달라”고 격려했다. 특히 젊은 학생들이 협회를 통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진로에 유익한 도움이 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과학 필드의 세미나가 라이프 사이언스와 엔지니어 부문으로 나뉘어 오전 오후로 실시되었고, 이어진 경력개발 세미나, 김희용 KWise 회장의 연구주제 세미나, 여성 건강 팁 등이 진행됐다.

평소 자주 만나기 어려운 회원들 및 선후배 간의 네트워킹 시간도 틈틈이 이어졌다.

김지은 회장은 “전공분야는 물론 가정일과 병행하며 갖는 어려움, 학업과 진로에 대한 고민 등 여러 가지 공통의 이슈들을 나누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도록 격려하는 유익한 네트워크의 장에 텍사스 지역에 흩어져있는 많은 여성과학기술 인력들이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앞으로 후배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한인지역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활동의 폭을 넓혀나가겠다”고 비전을 전했다.

<변성주 기자>

